

중소·중견기업 CEO를 위한

# 알기 쉬운 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대한상공회의소

삼성 KPMG

중소·중견기업 CEO를 위한  
**알기 쉬운 ESG** \*



중소·중견기업 CEO를 위한

# 알기 쉬운 ESG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 I

### ESG의 의미와 부상배경

04

- 1. ESG란 무엇인가? 07
- 2. ESG 논의의 발전과정 09

## II

### ESG가 기업에게 중요한 이유는?

12

- 1. 투자자의 ESG 요구 증대 15
- 2. 고객의 ESG 요구 증대 18
- 3. 신용평가에 ESG 반영 20
- 4. ESG 정부 규제 강화 22





## ESG 경영 활동이란?

26

- 1. 기업 경영 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 29
- 2. ESG 경영체계와 추진과제 30
- 3. ESG 정보공개와 가이드라인 32



## ESG 경영 시대, 중소·중견기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38

- 1. ESG 경영, 중소·중견기업의 새로운 경쟁력 41
- 2.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강화를 위한 협력 전략 43
- 3. 중소·중견기업의 ESG 정보공개 방안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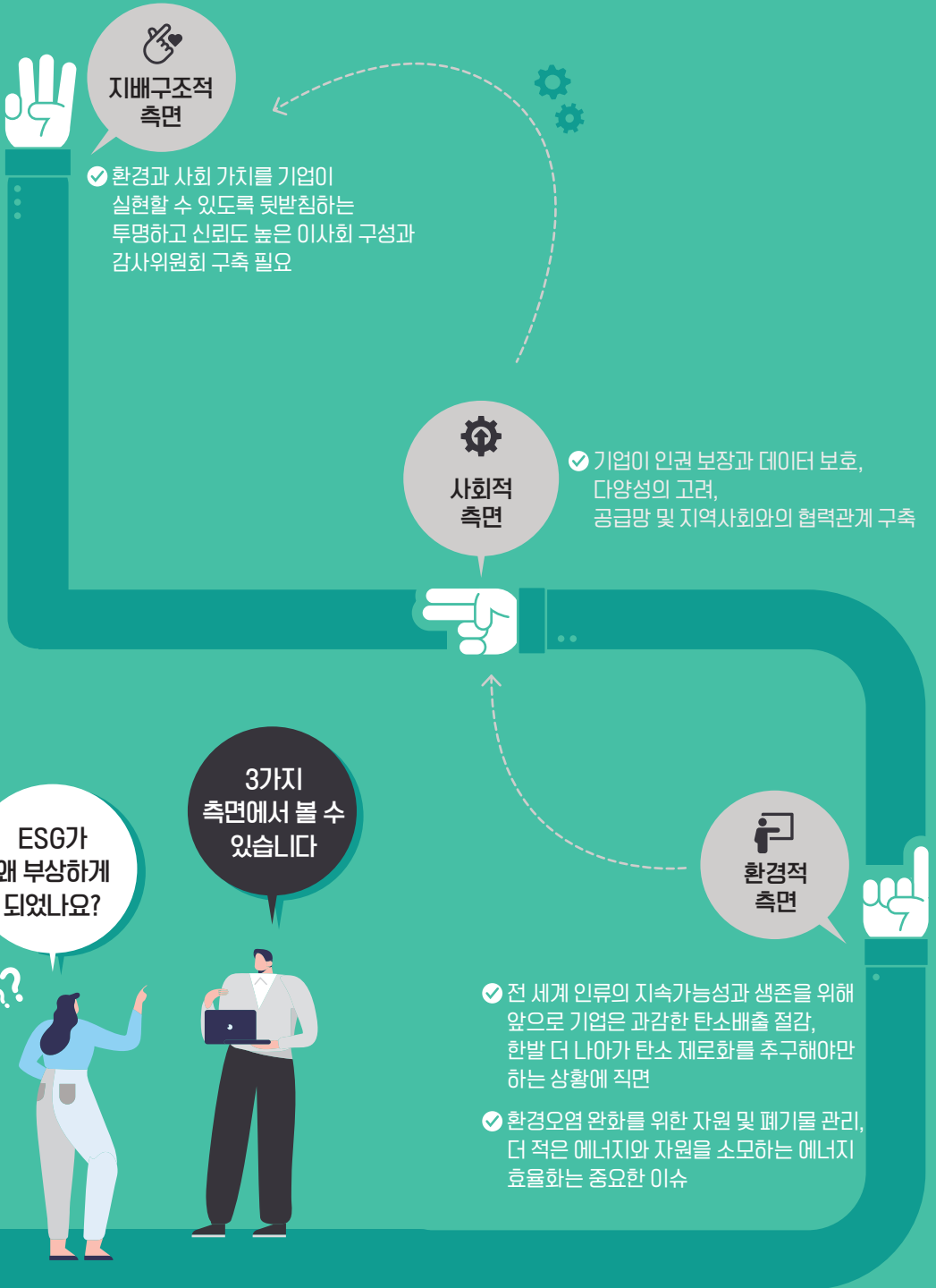


# ESG의 의미와 부상배경



??  
ESG가  
뭐죠?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해서  
만든 용어입니다.



# I

## ESG의 의미와 부상배경



1. ESG란 무엇인가?
2. ESG 논의의 발전과정



# 1. ESG란 무엇인가?

ESG는 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Environmental은 기업의 친환경 경영, Social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Governance는 기업의 투명한 지배구조 등을 의미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ESG의 직관적인 의미보다는 ESG가 기업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실질적 의미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ESG는 기업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이며, 재무제표에는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기업의 중장기 기업가치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비재무적 지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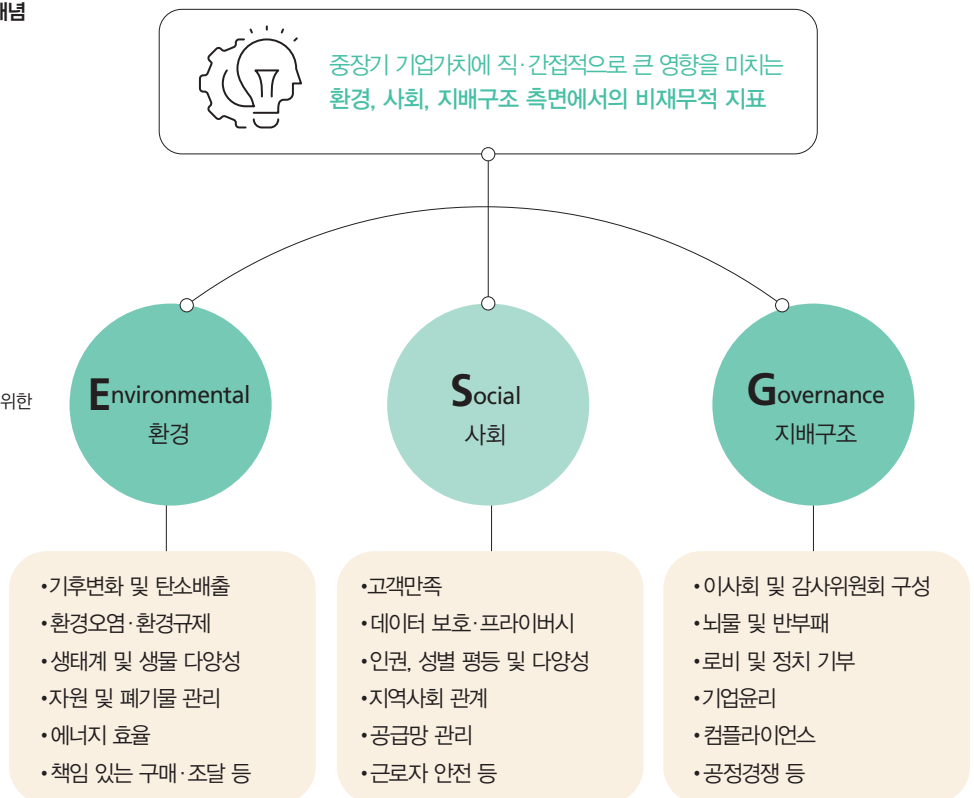
정리하면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는 단어의 조합이지만, 숨은 키워드는 바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기업가치, 그리고 비재무적 성과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ESG의 구성요소와 개념



중장기 기업가치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의 비재무적 지표

기업 경영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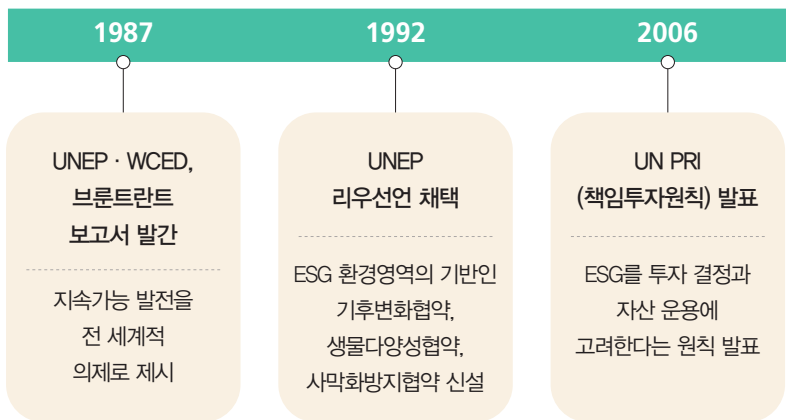
과거 기업가치는 재무제표와 같은 정량적 지표에 의해 주로 평가되어 왔지만,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최근에는 ESG와 같은 비재무적 가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ESG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용어인 '지속가능성'에 나타나 있듯이, ESG는 기업가치에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이 단기적인 재무적 성과보다 덜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환경,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 전환하에서, ESG는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과 번영에 직결되는 핵심적인 가치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ESG를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세 가지 하위 요소로 나눠 살펴보면, 먼저 환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기후변화와 탄소배출 관련 이슈입니다. 전 세계 인류의 지속가능성과 생존을 위해 앞으로 기업은 과감한 탄소배출 절감, 한발 더 나아가 탄소 제로화를 추구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 완화를 위한 자원 및 폐기물 관리, 더 적은 에너지와 자원을 소모하는 에너지 효율화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회 측면에서는 기업이 인권 보장과 데이터 보호, 다양성의 고려, 공급망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에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이러한 환경과 사회 가치를 기업이 실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이사회 구성과 감사위원회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뇌물이나 부패를 방지하고, 로비 및 정치 기부금 활동에서 기업윤리를 준수함으로써 높은 지배구조 가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으로 본  
ESG 관련 글로벌 주요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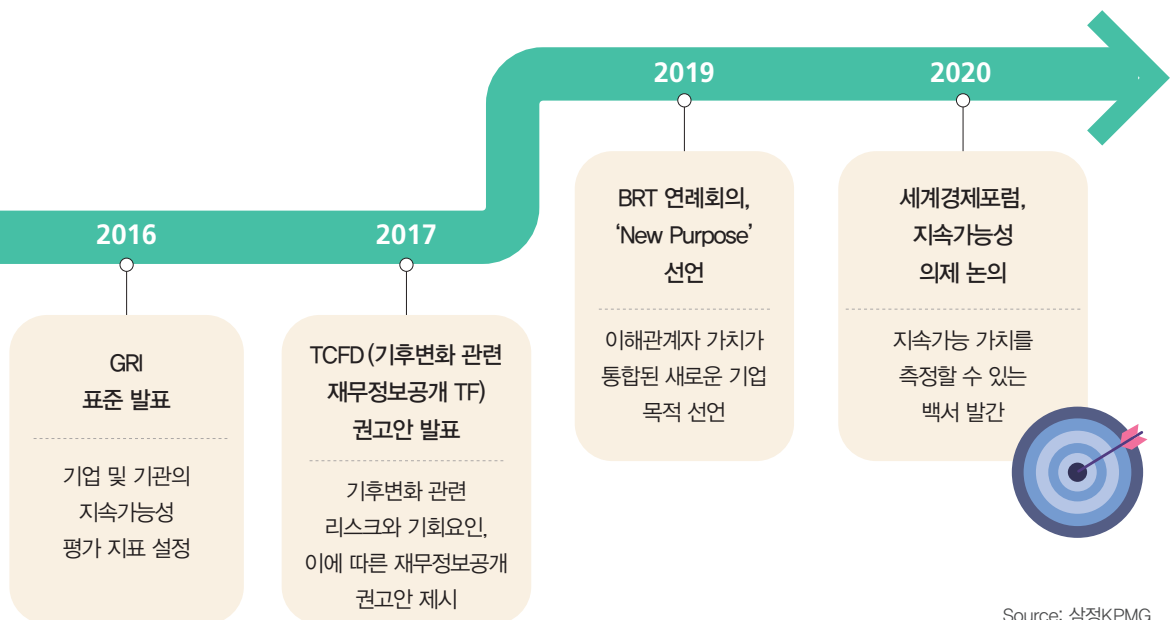


## 2. ESG 논의의 발전과정

2020년을 전후하여 기업 경영에서 ESG가 큰 화두로 떠올랐지만, 사실 ESG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개념은 아닙니다. ESG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개념인 지속가능발전에서 출발해,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는 지표로 ESG가 부상하게 된 역사적인 흐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이 의제로 등장한 것은 1987년에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공동으로 채택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입니다. 일명 브룬트란트 보고서라고 불리는 이 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 발전을 '미래세대에게 필요한 자원과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발전'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인류가 빈곤과 인구증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환경 파괴 등의 위기에 직면해 앞으로 대재앙이나 파국을 맞이하지 않고도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유엔환경계획은 1992년 브라질 리우 회의에서 '리우선언'을 채택하게 되는데, 이 리우회의에서 ESG의 환경영역의 기반이 되는 세계 3대 환경 협약인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을 신설하게 됩니다.



Source: 삼성KPMG

1997년에는 기업이나 기관이 발간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비영리단체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가 설립 되었습니다. GRI는 2000년에 첫 번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데 이어 수 차례 의 개정을 거쳐 2016년에는 GRI 표준(GRI Standards)을 정립했습니다. GRI 표준은 경제, 환경, 사회 부문으로 나누어 기업이나 기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현재 ESG 투자의 출발점이 되는 UN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책임투자원칙)가 결성되었습니다. UN PRI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슈를 투자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자산 운용 등에 고려한다는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UN PRI에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포함 해 2020년 3월 말 기준으로 전 세계 3,038개의 투자사 및 투자 기관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UN PRI는 금융 투자 원칙으로 ESG를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현재 기업 경영에서 강조되는 ESG 프레임워크의 초석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SG 관련 또 다른 중요 이벤트는 2017년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에서 발표한 재무정보공개 권고안입니다. TCFD는 세계 금융시장을 모니터링 하는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가 설립한 협의체입니다. TCFD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리스크와 기회요인을 분석하고,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의 4가지 측면에서 재무정보공개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업의 ESG 경영 논의에 불을 지피게 된 본격적인 계기로 볼 수 있는 이벤트는 바로 2019년에 있었던 BRT(Business Roundtable) 선언입니다. BRT는 애플, 아마존, 월마트, 블랙록과 같이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기업 CEO가 참여하는 연례회의입니다. 2019년 진행된 연례회의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은 기업의 전통적 목적인 주주 이익 극대화 원칙을 폐지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치가 통합된 새로운 기업의 목적(Purpose of a Corporation)을 선언하게 됩니다.



### 2019년 BRT 선언: 새로운 기업의 목적

- BRT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CEO 약 200여 명으로 구성된 협의체
- 2019년 서명에는 제프 베이조스(아마존), 팀 쿡(애플), 메리 바라(GM), 제이미 다이먼(JP모건), 지니 로메티(BM) 등 181명의 주요 기업 CEO들이 참여

Source: BRT,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181명의 글로벌 기업 CEO가 서명한 이 선언에는 과거에 주주(Shareholder)를 최우선시했던 기업들이 이제는 주주를 포함해서 고객, 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 BRT 선언에 참여하기도 했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CEO는 2020년 1월 전 세계 최고경영자들에게 보내는 연례서한을 통해 기후변화 리스크와 ESG를 투자 결정에서 핵심 요소로 반영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2020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지속가능성과 이해관계자가 핵심 주제로 다뤄졌으며, 이어 9월에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측정(Measuring Stakeholder Capitalism)'이라는 제목의 지속가능한 가치 측정 가이드라인 백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KPMG 등 글로벌 빅4 회계법인이 참여해 작성되었으며, 거버넌스, 지구, 사람, 번영을 4대 축으로 하여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가 제시되었습니다.

종합하자면, ESG는 1987년 발간한 브룬트란트 보고서에 언급된 지속가능발전에서 시작돼 2006년 UN PRI를 통해 구체화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19년 BRT 선언, 그리고 2020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강조되면서 ESG가 기업 경영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 II

## ESG가 기업에게 중요한 이유는?

??  
왜 중요한가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ESG 요구가  
증대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요구가  
있나요?

-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도모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의 책임투자 및 ESG 투자 전략 활용 확대

- ESG가 공급망 관리와 협력업체 선정의 주요 요소로 부상
- MZ세대 중심의 고객 ESG 요구 증대



투자자의  
ESG 요구 증대



고객의  
ESG 요구 증대



신용평가에  
ESG 반영



ESG 관련  
정부 규제 강화

4가지  
요구가  
있습니다

- 무디스, S&P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기업 신용 평가에 ESG 요소 적극 반영

- 국내 지속가능보고서 공시 의무화 추진
-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감축 규제 강화

## II

# ESG가 기업에게 중요한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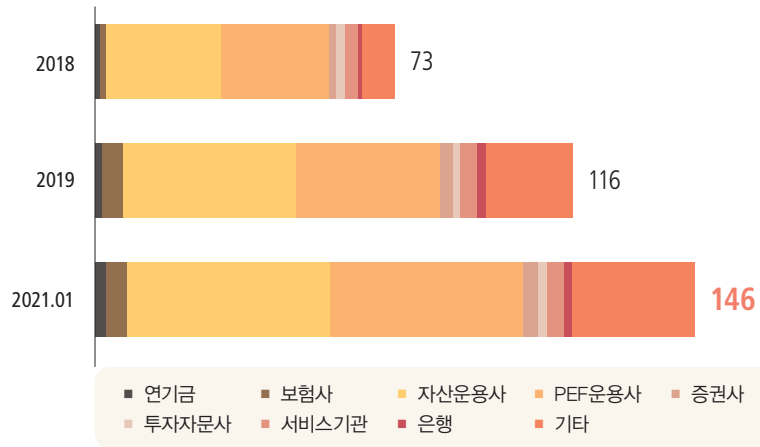
1. 투자자의 ESG 요구 증대
2. 고객의 ESG 요구 증대
3. 신용평가에 ESG 반영
4. ESG 정부 규제 강화



## 1. 투자자의 ESG 요구 증대

기업의 ESG 활동은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이슈입니다. 기후변화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기업의 핵심 이해관계자인 투자자, 고객, 신용평가사, 정부는 기업에게 높은 수준의 ESG 경영체계를 갖추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현황  
(단위 : 개)



Source: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로 가장 대표적인 제도는 바로 스튜어드십 코드 (Stewardship Code)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의결권 행사 등으로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기관투자자들은 비용 부담이나 피투자기업과 운용사 간 이해상충문제 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기업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관투자자들이 주주로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견제하지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2010년에 영국에서 최초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제도가 갖춰지고 2018년 국민연금을 시작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보험사, 자산운용사와 같이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만큼 기업 지배구조에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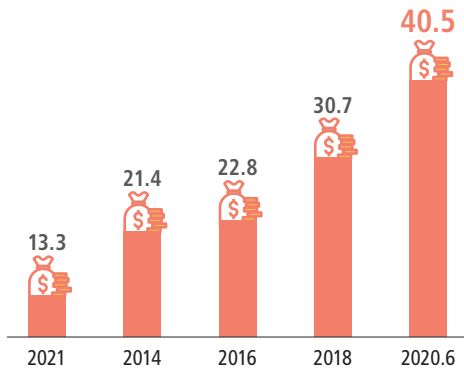
실제로 해외에서는 ESG 경영을 잘하지 못하는 기업들에게 기관투자자들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블랙록은 2020년 엑슨모빌 주주총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전략 수립과 기후변화의 재무적 영향에 대한 공시가 미비했다는 이유로 이사 2인 연임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에 더해 이러한 ESG 리스크 관리 미비가 이사회 독립성 결여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CEO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는 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블랙록은 엑슨모빌 외에도 환경오염개선 미비를 이유로 볼보 등 35개 기업에게 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한편 투자자들은 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뿐만 아니라 투자 대상을 정할 때도 ESG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기관투자자들이 ESG를 고려해서 진행하는 투자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기준으로 40조 5천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관투자자들이 ESG 투자를 할 때 고려하는 사항 중 가장 비중이 큰 전략은 네거티브 스크리닝입니다. 네거티브 스크리닝은 담배나 무기제조 등을 통해 이익을 얻는



글로벌 ESG 투자 자산 규모

(단위 : 조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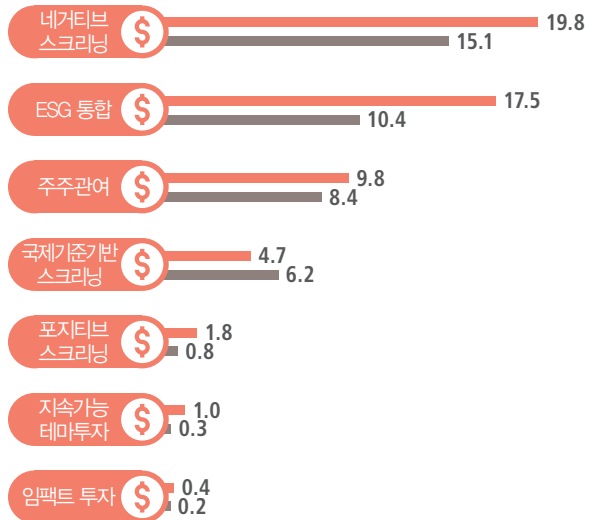


Source: 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합(GSIA)

ESG 투자전략 유형에 따른 투자규모

(단위 : 조 달러)

■ 2018년 ■ 2016년



Source: 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합(GSIA)

등 ESG 활동이 미비한 기업을 투자 포트폴리오나 펀드 구성에서 아예 배제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투자 시 ESG 통합 전략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ESG 통합 전략은 투자 의사 결정을 위한 재무분석 프로세스 자체에 ESG 요소를 체계적·명시적으로 융합시키는 방식입니다.

ESG 요소를 투자 의사 결정에 적용한 사례를 살펴보면, 네덜란드연기금(APG)은 에어버스, 필립모리스 등 159개 기업을 무기제조, 담배판매 등의 이유로 투자를 배제시켰고, 노르웨이은행 투자운영회(NBIM)의 경우 환경파괴 이유로 듀크에너지, 콜인디아(Coal India)에 대해 투자를 배제했습니다. 세계 3대 자산운용사인 뱅가드도 중국 군수관련기업 투자금지 목적으로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의 주식을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기관투자자의 투자 배제 사례



**네덜란드연기금(APG)**

- 에어버스, 필립모리스 등 159개 기업
- 무기제조 등의 이유로 투자배제



**노르웨이은행  
투자운영회  
(NBIM)**

- 아보이티즈 파워, 듀크에너지, 콜인디아(Coal India) 등
- 환경파괴 이유로 투자배제





**뱅가드(Vanguard)**

-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
- 중국 군수 관련 기업 투자 금지로 주식매각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투자자뿐만 아니라 유럽을 중심으로 금융권에도 최근 ESG가 기업대출의 평가요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기업의 신규 대출이나 대출 갹신 시에 금리조건을 산정할 때 다양한 ESG 평가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투자배제와 금융권의 대출 규제는 해당 기업의 자본조달과 직결되기 때문에 ESG가 기업의 생존과 비즈니스 지속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 2. 고객의 ESG 요구 증대

글로벌 기업들은 ESG 경영이 미흡한 공급사와는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업화된 공급망 구조에서 자칫 ESG에 소극적인 기업은 향후 고객 기반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ESG에 반하는 공급망 관리가 사회적인 논쟁으로 부상하기도 했는데, 대표적으로 코발트 광물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기업으로 조명받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과 함께 컴퓨터 제조사 델까지 총 5개 기업이 2019년 코발트 문제로 국제권리변호사회로부터 피소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코발트는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배터리와 각종 전자 기기에 매우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의 핵심원료인 코발트의 상당량이 콩고에서 생산되고 있고, 콩고의 많은 어린 아이들이 코발트 생산을 위해 어려서부터 노동현장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ESG가 부상하면서 이러한 공급망 구조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테슬라는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코발트 프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100% 니켈 함유 배터리를 개발 중이며, 또 공급망에 있는 근로자 인권과 근로환경개선에서도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애플의 경우도 본격적으로 ESG 기반의 공급망 관리에 돌입했습니다. ‘협력업체 청정에너지 프로그램’에 따라 2030년까지 애플의 협력사는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제품을 공급해야 합니다. 또한 애플은 공급망 내 모든 단계의 협력업체에 대한 노동권, 인권, 건강, 환경보호 등에 행동수칙(Apple Supplier Code of Conduct)을 마련하고, 이를 평가하여 협력업체의 ESG 성과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 화학기업 바스프 같은 경우도 자사뿐만 아니라 ESG 행동강령을 12개 언어로 번역해서 협력사에 제공하고 있으며, 협력사에게 국제적인 노동기준이나 안전기준의 표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ESG 기반 공급망 관리 사례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ESG를 반영한 공급망 관리는 유럽을 중심으로 법제화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EU는 최근 산업 전반에 걸쳐 기업의 공급망에 대한 인권, 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U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뿐만 아니라 EU 시장에서 거래하는 기업들까지 대상에 포함해서 사실상 새로운 무역장벽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2021년 2월 EU에서 공급망실사 의무화(Due Diligence) 법안을 상정했고 통과 시 2022년부터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한편 소비자들의 ESG 친화적인 기업 제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대한상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의 63.0%가 '제품 구매 시 기업의 ESG 활동을 고려한다'고 응답했습니다. 'ESG 활동에 부정적인 기업의 제품을 의도적으로 구매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비율도 70.3%에 달했습니다. '추가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ESG 활동이 우수한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대답한 비율도 88.3%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ESG 경영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대한상의, '21.5)



ESG 경영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 ☑ '제품 구매 시 기업의 ESG 활동 고려한다' ..... **63.0%**
- ☑ 'ESG 활동에 부정적인 기업의 제품을  
의도적으로 구매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 ..... **70.3%**
- ☑ 'ESG 우수 기업 제품의 경우 추가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할 의향이 있다.' ..... **88.3%**
- ☑ 'ESG 우수 기업 제품의 경우 추가 가격 지불 의향'  
10% 이상 (**6.3%**), 7.5~10% (**8.0%**), 5~7.5%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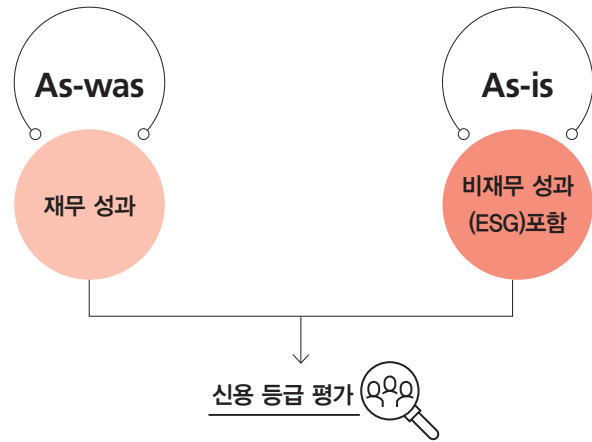
### 3. 신용평가에 ESG 반영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 피치(Fitch Ratings), S&P(Standard & Poor's) 등에서는 ESG 평가 결과를 신용 등급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S&P Global의 경우, 환경오염이나 탄소배출량, 안전보건,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등으로 분류하여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신용등급을 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듀크에너지(Duke Energy)의 경우 석탄발전소에서 과도하게 석탄 재가 배출된다고 보고 신용등급을 'A-Stable'에서 'A-Negative'로 조정하여 ESG에 따른 신용위험을 알렸습니다. 신용평가기관들은 ESG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을 보유한 ESG 평가기관들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에 비재무적 성과를 포함하는 글로벌 사례는 국내 신용평가기관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한국신용평가는 ESG 채권 인증 평가사업을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자체 내 ESG 금융 평가방법론을 기준으로 한국중부발전이 발행한 제59회 공모사채(지속가능채권)를 평가했는데, 발행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기후변화 완화 및 대응에 대한 회사의 의지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은 기업들의 ESG 경영이 재무적 위험을 넘어 신용위험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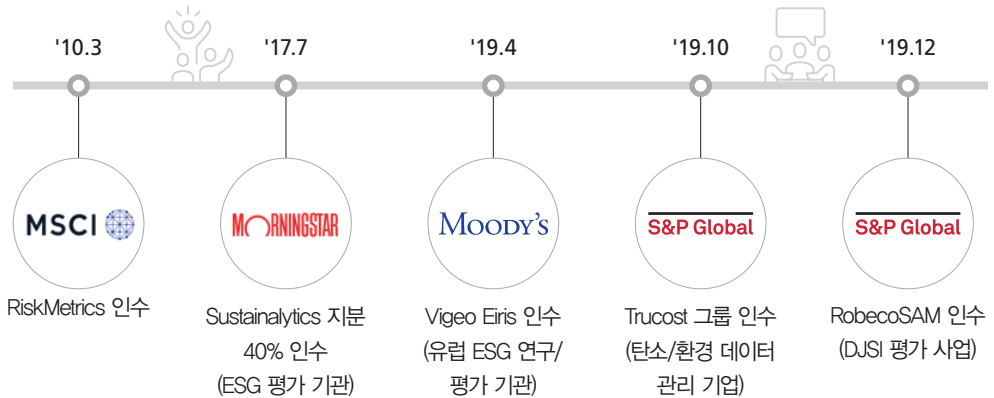
ESG를 신용등급에 반영하는  
글로벌 신용평가사



<b>Moody's</b>	ESG 기반으로 전체 기업 33% 신용등급 조정('19년)
<b>Fitch Ratings</b>	신용등급 평가 시, ESG Risk 수준이 높은 경우 반영
<b>S&amp;P Global</b>	개별 기업 신용등급 상/하향 사유에 대한 ESG 영향 공시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신용평가사의 ESG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M&A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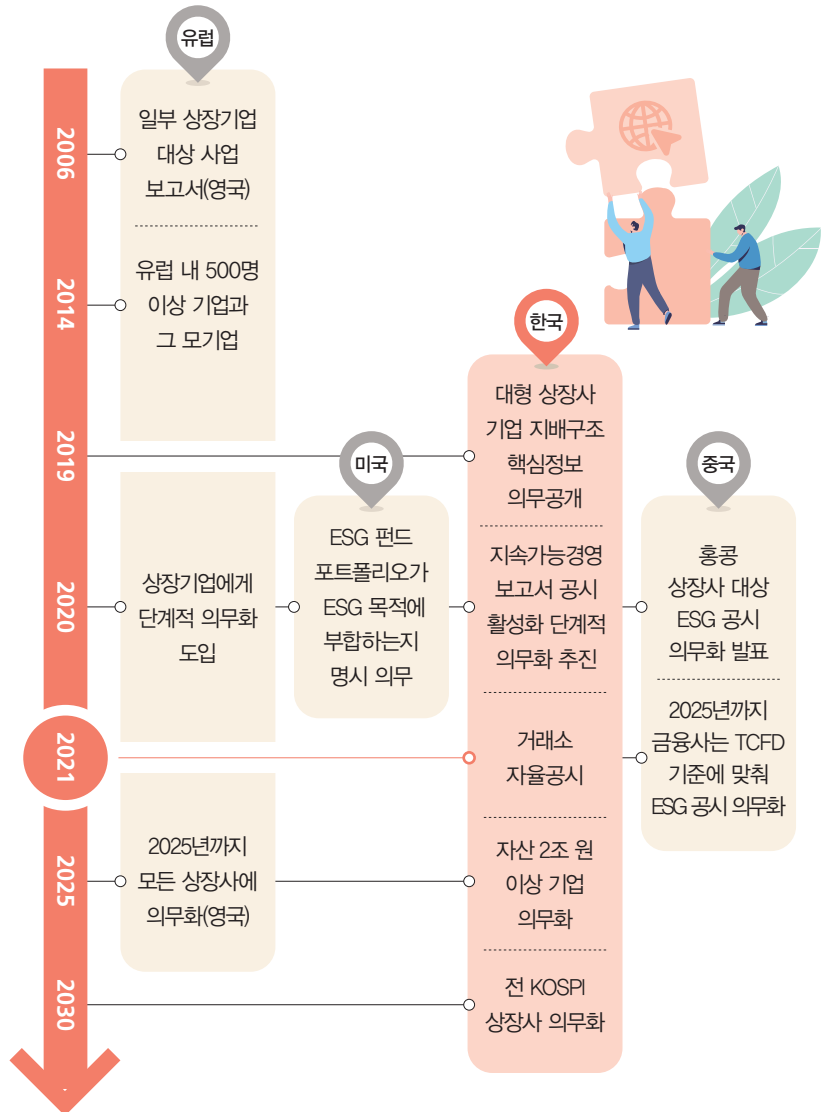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삼정KPMG

## 4. ESG 정부 규제 강화

유럽의 경우 2006년 UN PRI가 ESG 투자 원칙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공시 강화가 추진되었습니다. 유럽은 2021년 3월부터 연기금을 시작으로 은행과 보험사, 자산운용사로 ESG 관련 공시 의무를 확대했고, 영국은 모든 상장기업들에게 2025년까지 ESG 정보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국내외 ESG 공시 규제 추이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2019년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를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 핵심정보를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금융위원회가 ESG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자율적으로 작성하고 공시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으로, 먼저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자산 2조 원 이상, 2030년 이후에는 전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단계적 의무화

- 기업공시제도**  금감원과 금융위는 기업의 ESG 공시 강화 방안을 발표 (‘21년 1월 14일)  
**종합개선방안**  한국거래소, ‘ESG 정보공개 가이드선’ 공개



-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기업 年 평균 20% 증가를 목표
- ESG 정보공시 확대로 책임 투자 활성화



ESG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25년 부터 단계적으로 ESG 공시 의무화 추진

ESG 정보 공개 확대

- 환경(E), 사회(S) 정보를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자율공시 활성화 및 단계적 의무화 추진
  - 1단계 (~'25년): ESG 정보공개 가이드선 제시
  - 2단계 ('25~'30년):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기업 의무공시
  - 3단계 ('30년~): 전 코스피 상장사 의무공시
- 기업지배구조보고서(G)는 '26년부터 전 코스피 상장사 의무화(現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만 해당)

스튜어디십 코드 성과 평가/개정

- '16년 제정된 스튜어디십 코드의 시행 성과 평가
- ESG 관련 수탁자책임 강화 등 개정 검토

의결권 자문사 관리/감독 강화

- 의결권자문사의 전문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단계적으로 강화
  - 의결권자문사 정보 공개 확대 및 가이드라인 제정



주요국의 탄소중립  
목표 및 관련 정책

EU

'50년 탄소중립  
(2019.12 발표)

- '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조정 (40%→55%)  
- 탄소국경세 '21년 상반기 도입 검토 中
- '21년 7월 탄소국경세 법안 초안 발표 계획
- 향후 10년간 최소 1조 유로 조성 계획  
- 연평균 130조 원 투자

미국

'50년 Net Zero 달성 목표  
(2020.7 발표)

- 바이든 행정부 친환경 드라이브 가속화  
-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에 4년간 2조 달러 투자  
- 전력부문 2035 탄소배출 제로 달성  
- 친환경차 산업 육성 및 캘리포니아식 연비규제 강화  
- 기후변화 국제 공조 주도 (파리협정 재가입)

중국

'60년 탄소중립  
(2020.9 발표)

- 제14차 5개년 계획 ('21-'25년) 내 이행 계획 포함  
- 기존 친환경 산업 정책 추진력 강화  
- 주요 산업 녹색 전환 등 녹색성장 가속화, 탄소 감축 방안 구체화,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도입  
- '37년 전기차 비중 화석연료 차량 추월 전망 등

한국

'50년 탄소중립 선언  
(2020.10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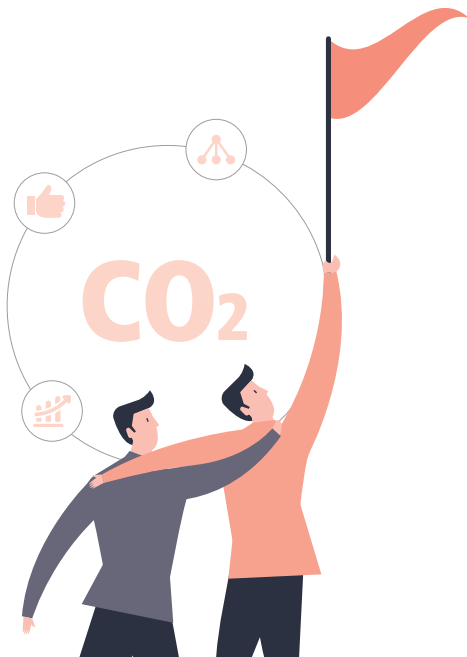
- 적응적(Adaptive) 감축 → 능동적(Proactive)로 전환
- 3대 정책 방향(10대 과제) 선정  
- '25년 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조정 추진  
-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新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

Source: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부처 합동, 삼정KPMG

ESG 관련하여 또 다른 대표적인 규제인 기후변화와 관련된 탄소규제를 들 수 있습니다. 2015년 파리협정에서는 모든 국가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장기 목표를 설정했는데, 5년 단위로 이행을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EU의 경우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환경 규제 중 하나는 바로 탄소국경세입니다. 탄소국경세는 EU가 자국보다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나라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제도입니다. EU는 이미 2018년 탄소국경세 관련 법안 근거를 마련했고, 2023년 본격적인 도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작은 EU 한 곳이었지만 탄소국경세는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탄소국경세 도입을 공약해 세계 무역 흐름에 변화가 올 것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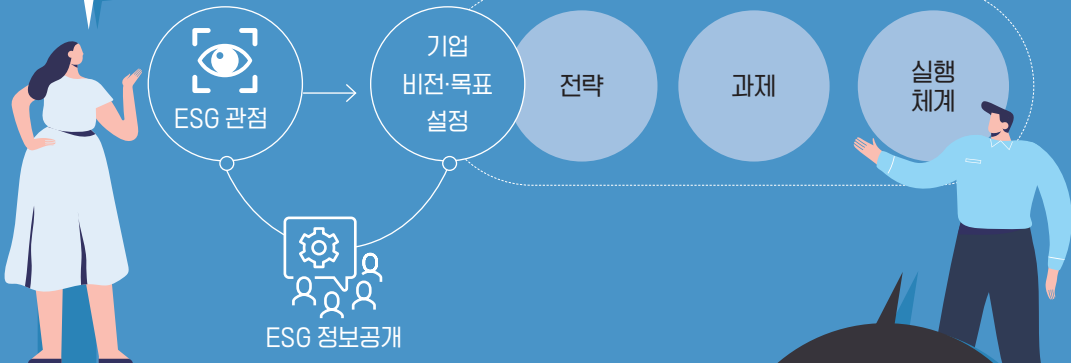
국제적으로 탄소배출량이 가장 높은 중국도 저탄소 배출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탄소 다배출업체에 대해서는 탄소배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엔 1만 위안에서 3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조정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환경 관련 규제들이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ESG 경영 활동이란?

ESG  
경영이란?  
??



“ESG 경영전략”과  
“ESG 정보공개”로 구분될  
수 있고, 이러한 ESG경영  
활동을 통해서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개념입니다.



각종

ESG 정보에 대한  
글로벌 표준이  
마련되어 있음

✓ GRI Standards



기업이 경제, 환경,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는 지속가능보고서에 대한 작성 지침

✓ SASB Standards

Sustainable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SICS)에 따른 11대 산업군에 따라 별도의 보고지침

✓ WEF-IBC-MSC

거버넌스의 원칙, 지구, 사람, 번영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ESG 관련 21개 핵심지표, 34개 확장지표를 제시



✓ TCFD Recommendations

기후변화 관련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는 지표와 목표 등

✓ IR Framework

재무/비재무 정보 통합 공시(IR Framework에 따른 외부 환경, Business Model, 전략, Resource Allocation 등)

✓ ISO26000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제고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





# ESG

## 경영 활동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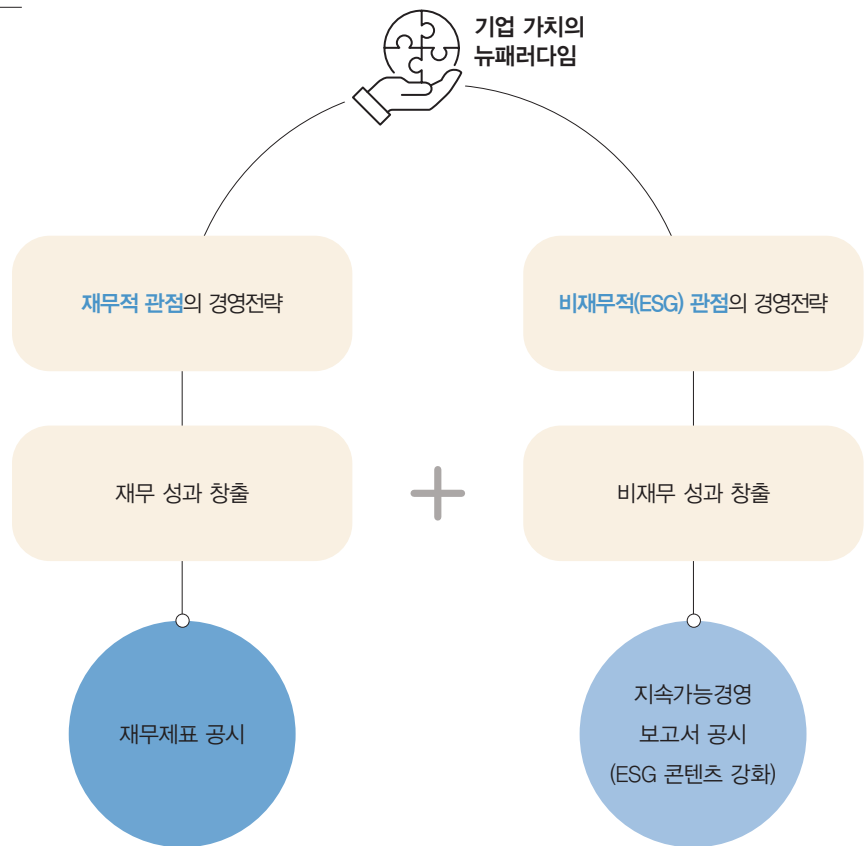
1. 기업 경영 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
2. ESG 경영체계와 추진과제
3. ESG 정보공개와 가이드라인



# 1. 기업 경영 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ESG 경영 요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기업의 기업가치 유지와 비즈니스의 지속성에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ESG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잘 반영된 기업의 경우 제품과 서비스에 고객들의 관심이 커질 뿐만 아니라, 투자가 확대되고, 자본조달 비용 감소로 이어져 기업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입니다. 이제는 기업이 재무 성과뿐만 아니라 ESG와 같은 비재무적 성과를 함께 달성해야만 기업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재무적·비재무적 성과가 함께 고려되는 기업 경영 활동



현재까지 기업들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재무적 관점에서 크게 2가지 경영 활동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 경영 활동은 경영전략 수립입니다. 기술 혁신, 제품·서비스 혁신, 조직역량 강화와 투자 등을 통해 매출과 이익을 극대화해 왔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경영전략 활동에 따른 경영성과를 재무제표를 통해 자본시장에 공시하는 것입니다.

ESG도 마찬가지로 2가지 경영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ESG 관점에서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둘째 ESG 성과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등을 통해 시장 이해관계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업은 기존 재무적 관점의 경영 활동과 더불어 비재무적(ESG) 경영활동도 함께 균형을 가지고 전개해야만, 기업가치가 증대되며 지속가능해지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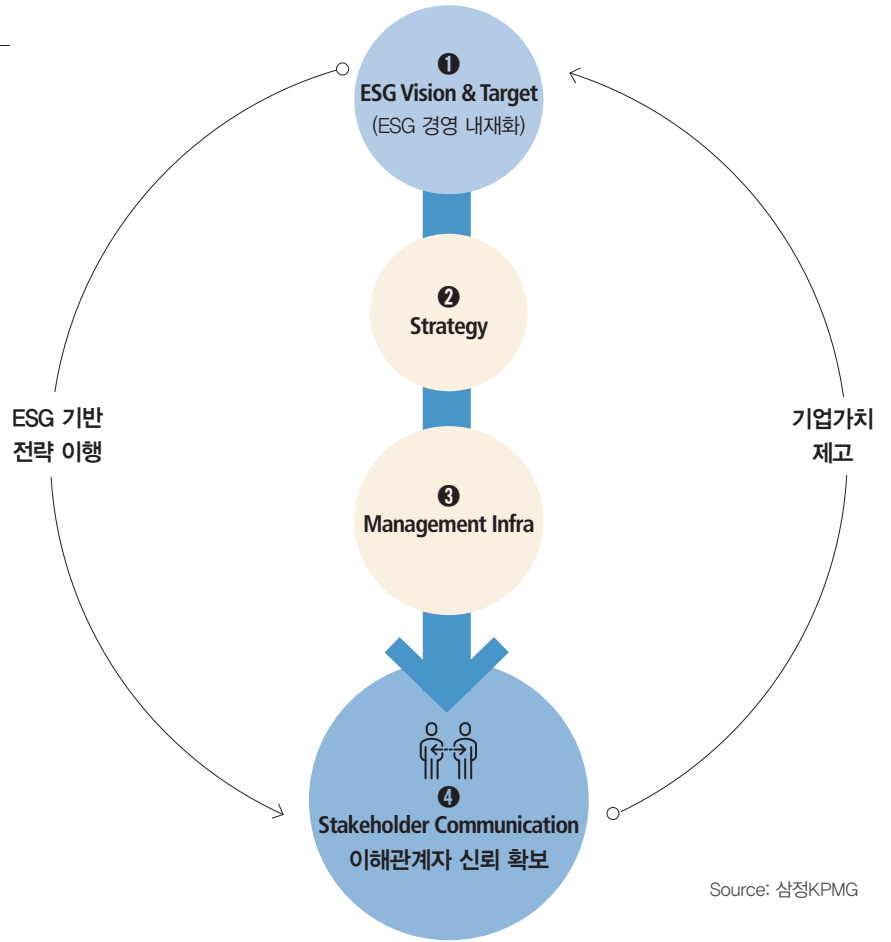
## 2. ESG 경영체계와 추진과제

ESG 경영이란 결국 “ESG 경영전략”과 “ESG 정보공개”로 구분될 수 있고, 이러한 ESG경영 활동을 통해서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ESG 경영전략은 무엇일까요? ESG 경영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제 많은 비즈니스 리더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ESG 전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묻는다면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ESG 경영전략은, ESG 관점에서 기업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이나 과제, 실행 체계 등을 구축하여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들 대부분은 비전과 목표, 미션, 전략 등 경영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ESG에 맞춰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SG 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전략의 실행과제로는 각 기업별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 ESG 규제에 대응해야 하고, ESG가 기업의 투자나 자금조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ESG 테마의 M&A를 고려해 볼 수도 있고, 신기술을 ESG와 접목시켜 비즈니스 혁신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Google은 AI 기술을 적용하여 클린 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모델을 진행 중에 있고, 애플은 로봇을 이용해 아이폰을 분해하고 재활용하는 순환경제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경영 보고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도 기업들에는 ESG 경영전략의 중요한 실행과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SG 경영체계



Source: 삼정KPMG

ESG 경영전략 실행과제(예시)



Source: 삼정KPMG



### 3. ESG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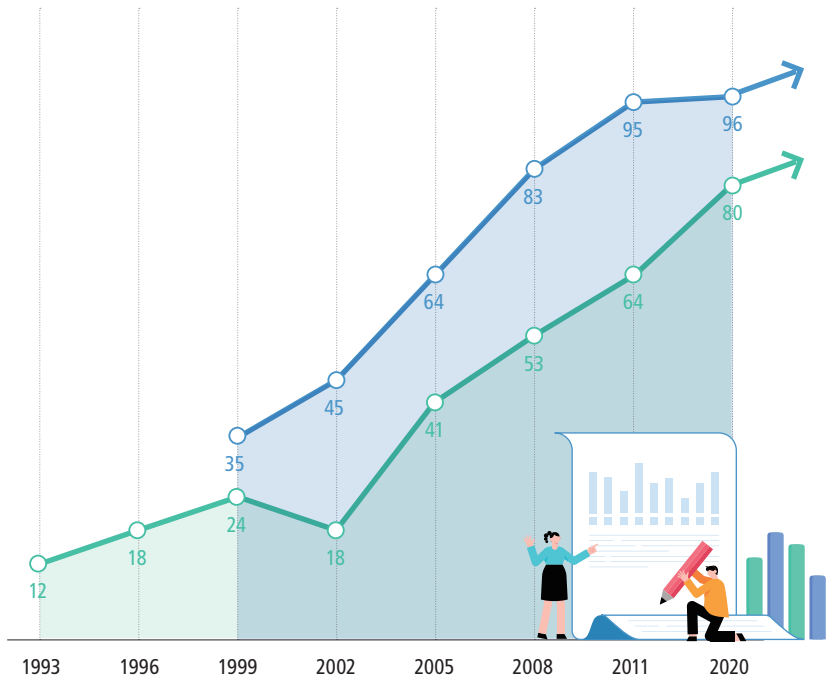
그렇다면 ESG 경영활동의 또 다른 한 축인 ESG 정보공개란 무엇일까요? ESG 정보공개는 투자자 관점에서 기업의 ESG 정보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자본시장에 공시하는 개념입니다. 세부적으로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ESG 리스크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반영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투자자들이 ESG 정보가 반영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참고하여 투자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 선도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KPMG가 2020년 전 세계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Sustainability Reporting)’ 동향을 조사한 결과, 포춘 선정 500대 기업 중 매출 상위 250개 기업의 96%와 52개 국가의 매출 상위 100개 기업(5,200개)의 80%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글로벌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율 추이

(단위 : %)

- G250(250개 기업)
- N100(5,200개 기업)



Note: N100(5,200개 기업)과 G250(25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함. N100은 KPMG 전문가들이 52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매출액 기준 상위 100개 기업을 뽑아 구성. G250은 2019년 포춘(Fortune)이 선정한 500대 기업 중 매출액 기준 상위 250개 기업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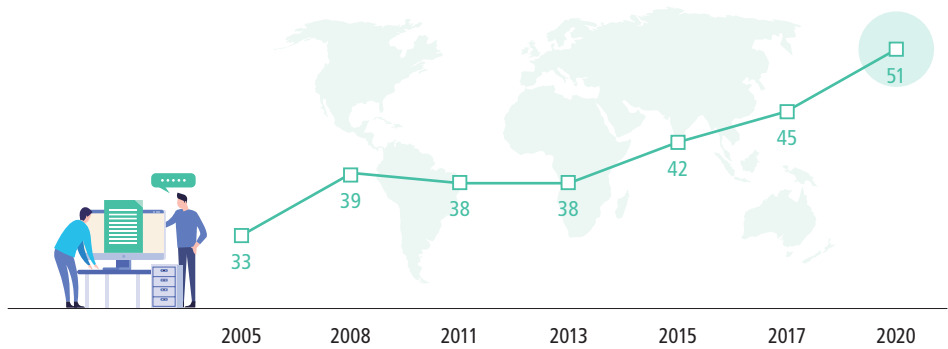
Source: KPMG Survey of Sustainability 2020

한편 조사 대상 기업들 중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제3자에게 인증 받는 경우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글로벌 리딩 기업이나 각 국가의 매출 상위 기업에 해당되며, 아직까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로 인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더 많은 중소·중견 기업들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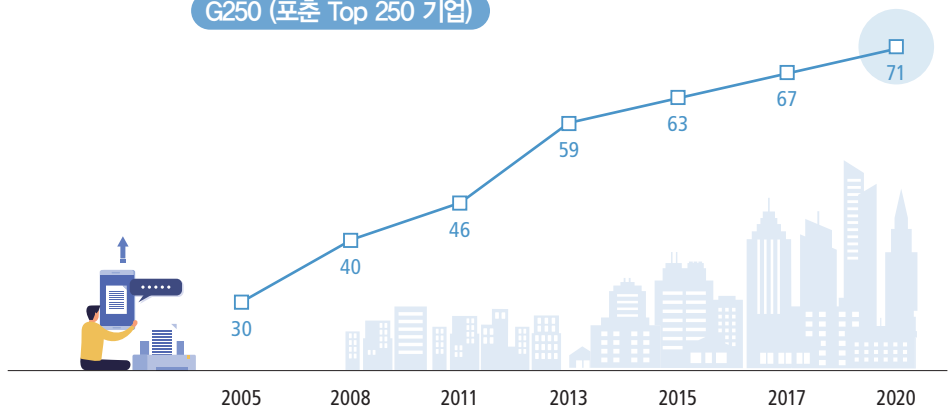
지속가능경영 보고에 대한 제3자 인증 추이

(단위 : %)

N100 (52개 국가별 매출 Top 100 기업)



G250 (포춘 Top 250 기업)



## 그렇다면 기업들은 어떤 기준에 따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의 경우 공통된 지표 개발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통일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을 위해 기업들이 주로 참고하는 글로벌 가이드라인으로는 GRI Standards, SASB Standards, TCFD 권고안, IR Framework, ISO26000, WEF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공통지표'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2021년 발표한 'ESG 정보 공개 가이드선'에서도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글로벌 표준/이니셔티브의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관련 주요 가이드라인

#### ✓ GRI Standards



**글로벌리포팅이니셔티브**  
(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

기업이 경제, 환경,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는 지속가능보고서에 대한 작성 지침

#### ✓ SASB Standards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ASB)

Sustainable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SICS)에 따른 11대 산업군에 따라 별도의 보고지침

#### ✓ WEF-IBC-MS(Measuring Stakeholder Capitalism Towards Common Metrics and Consistent Reporting of Sustainable Value Creation)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산하  
국제비즈니스위원회(International Business Council, IBC)**

거버넌스의 원칙, 지구, 사람, 번영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ESG 관련 21개 핵심지표, 34개 확장지표를 제시

☑ TCFD Recommendations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Financial Stability Boar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

기후변화 관련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는  
 지표와 목표 등

☑ IR(Integrated Reporting) Framework

**국제통합보고위원회**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IIRC)

재무/비재무 정보 통합 공시(IR Framework에 따른 외부 환경, Business  
 Model, 전략, Resource Allocation 등)

☑ ISO26000

**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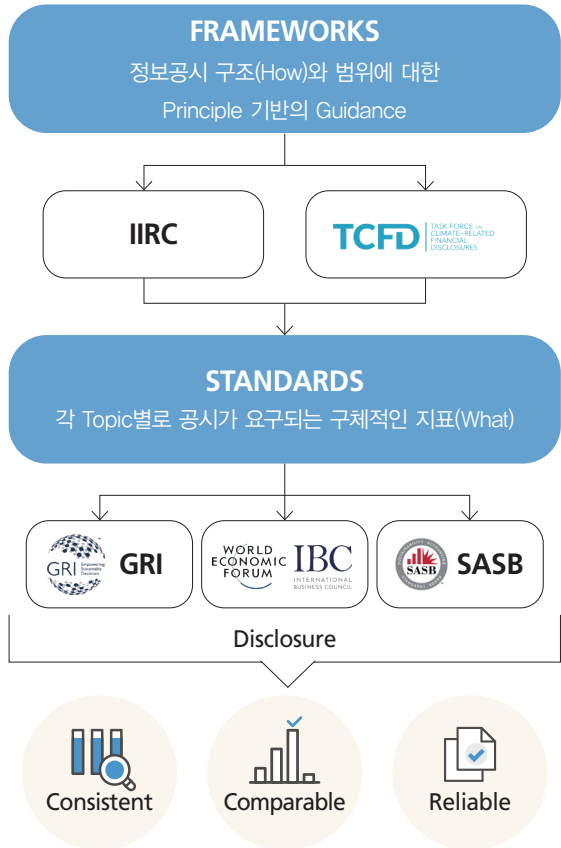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제고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 핵심 주제는 조직 거버넌스, 인권, 노동 관행, 환경, 공정 운영  
 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Source: 국회예산정책처,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하나의 가이드라인만 참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TCFD나 ISO 등은 기업이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이나 리스크 관리체계 등 주로 실행적  
 인 측면에서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GRI나 SASB 같은 경  
 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에서 사용되는 구체적인 성과 지표에 대한 가이  
 드라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실  
 행 체계와 성과 지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종합하여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정보공시 구조



Framework 예시 (환경)

-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기업의 거버넌스, 대응 전략, 리스크 관리, 목표(TCFD)

Standards 예시 (환경)

- **산업공통**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2 & 3) 공시 (GRI/IBC)
- **산업특성**  
전사(데이터센터 포함) 에너지/ 재생에너지 사용량 공시 (SASB)

기업 특성과 공시 방향성에 맞는  
framework 및 standards 선정  
필요

Source: 삼정KPMG

과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환경과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최근에는 환경·사회적 영향이 자사의 재무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즉, ESG 정보공시는 자사의 재무적 영향과 연계되어 점차 고도화되는 추세입니다.

한편 각각의 글로벌 ESG 정보 공개 표준/이니셔티브가 제시하는 지표들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지표들은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에만 적용되는 지표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 공개 표준/이니셔티브들이 제시하는 지표 중 한국거래소에서 제시한 핵심적이고 공통적인 지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관련  
주요 가이드라인의 공통지표

조직

항목	지표	세부 내용
ESG 대응	경영진의 역할	ESG 이슈의 파악/관리와 관련한 경영진의 역할
ESG 평가	ESG 위험 및 기회	ESG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평가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참여	이해관계자의 ESG 프로세스 참여 방식

환경

온실가스 배출	직접 배출량	회사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물리적 장치나 공장 에서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간접 배출량	회사 소비용으로 매입 또는 획득한 전기, 냉난 방 및 증기배출에 기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배출 집약도	활동, 생산 기타 조직별 미터법의 단위당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	직접 에너지 사용량	조직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체의 에너지 소비량
	간접 에너지 사용량	판매제품의 사용 및 폐기처리 등 조직 밖에서 소비된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 사용 집약도	활동, 생산 기타 조직별 미터법의 단위당 필요한 에너지 소비량
물 사용	물 사용 총량	조직의 물 사용 총량
폐기물 배출	폐기물 배출 총량	매립, 재활용 등 처리 방법별로 폐기물의 총 중량
법규위반·사고	환경 법규 위반·사고	환경 법규 위반·환경 관련 사고 건수 및 조치 내용

사회

임직원 현황	평등 및 다양성	성별·고용형태별 임직원 현황, 차별 관련 제재 건수 및 조치 내용
	신규 고용 및 이직	신규 고용 근로자 및 이직 근로자 현황
	청년인턴 채용	청년인턴 채용 현황 및 정규직 전환 비율
	육아휴직	육아휴직 사용 임직원 현황
안전·보건	산업재해	업무상 사망, 부상 및 질병 건수 및 조치 내용
	제품안전	제품 리콜수거, 파기, 회수, 시정조치 등) 건수 및 조치 내용
	표시·광고	표시·광고 규제 위반 건수 및 조치 내용
정보보안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 위반 건수 및 조치 내용
공정경쟁	공정경쟁·시장지배 적 지위 남용	내부거래·하도급거래·가맹사업·대리점거래 관련 법규 위반 건수 및 조치 내용

Source: 한국거래소, 'ESG 정보 공개 가이드선'

# IV

## ESG 경영 시대, 중소·중견기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E**ngaging

대중소 ESG  
파트너십(동반성장) 강화

**E**ncouraging

중소·중견기업 ESG  
지원 생태계 활성화

**E**ducating

중소·중견기업  
인식제고/  
변화관리 지원

**E**nabling

ESG 데이터  
플랫폼 구축

4E 협력 전략



대기업-중소·중견기업 간  
ESG 파트너십을 통해  
공급망 내에 ESG 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ESG 역량을 함께 성장시키는  
방안이 있습니다.

??  
중소·중견기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ESG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 경영 기초자료 수집 및 검토
- ✓ 국내외 ESG 동향 분석
-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 내·외부 중요성 평가를 통한 주요 주제 선정

주제  
선정



보고  
기획



- ✓ 이해관계자의 관심사항, 기업의 사업 전략, 주요 보고 주제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고서 구조 설계
- ✓ 글로벌 공개 표준/이니셔티브를 참고하여 ESG 이슈의 일반적인 분류 및 구성을 적용

내용  
작성



- ✓ ESG 활동을 단순하게 나열이 아닌 ESG 요소를 조직 전략, 조직 구조, 운영체계, 활동 및 성과목표와 연계하여 작성
- ✓ 정보공개원칙에서 제시된 요건을 고려

내용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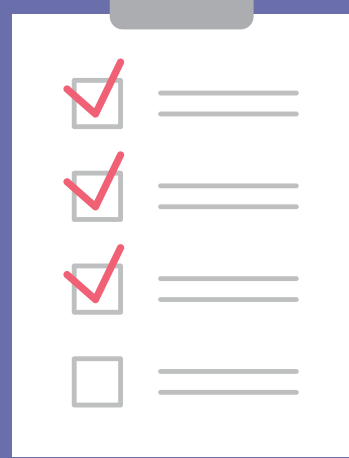
- ✓ 작성된 내용에 대한 검증을 통해 신뢰성 확보
- ✓ 검증의 방법, 범위 및 검증기관 고려
- ✓ 제3자를 통해 독립적인 검증과 공인된 검증표준을 준용하여 객관성 확보

대외  
공개



- ✓ 정보 공개를 위해 홈페이지 등 적절한 공개 채널을 선정할 것
- ✓ 정보는 연 1회 이상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매년 일정한 시기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ESG보고서  
작성/공개 절차 및  
단계별 검토 사항은  
이렇습니다





# IV

## ESG 경영시대, 중소·중견기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1. ESG 경영, 중소·중견기업의 새로운 경쟁력
2.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강화를 위한 협력 전략
3. 중소·중견기업의 ESG 정보공개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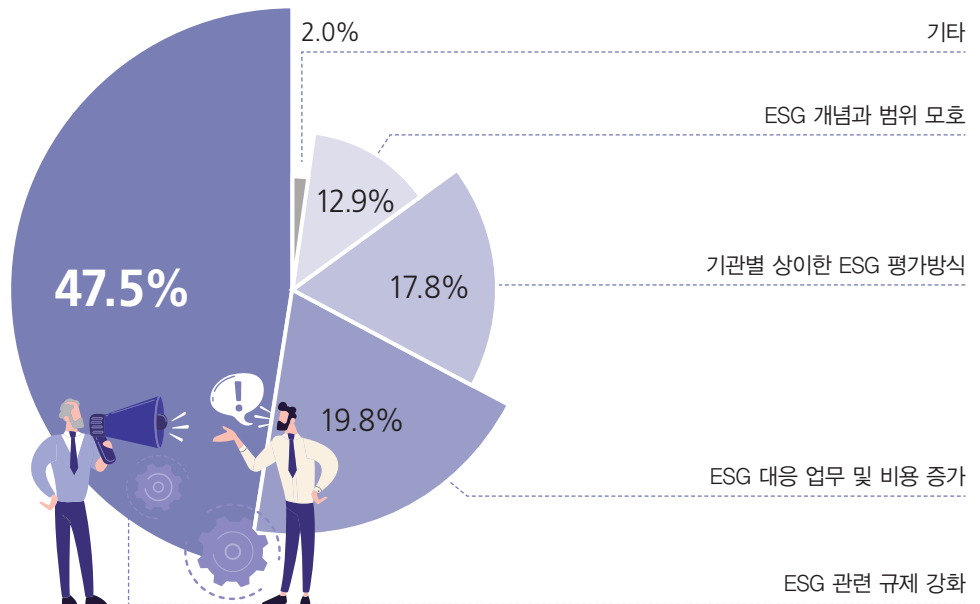
## 1. ESG 경영, 중소·중견기업의 새로운 경쟁력

선도적인 기업들은 코로나19 이후 찾아온 새로운 현실(New Reality)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 나가기 위해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발 빠르게 ESG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SG에 대한 준비는 아직까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인력과 자본으로 운영되다 보니, 업무 및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로 인해 ESG 경영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국내에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될 ESG 정보공개 의무도 자산 2조 원 이상이나, 코스피 상장사 등 규모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최근의 경영환경은 중소·중견기업들도 ESG 요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앞서 투자자들은 ESG가

중견기업의 ESG 경영 추진 시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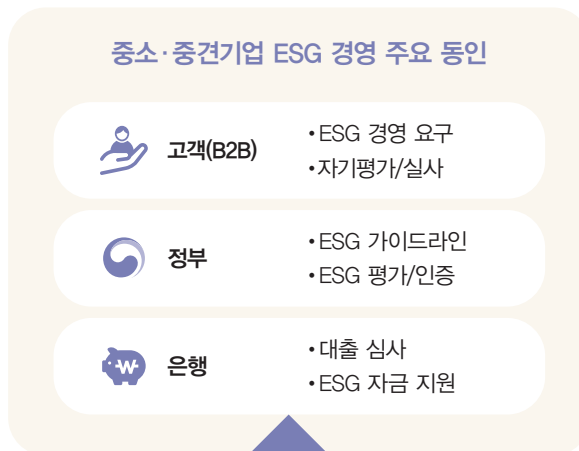
Source: 한국중견기업연합회, 'ESG 경영 관련 중견기업에 의견조사', 삼정KPMG 재구성

미흡한 기업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또 은행권의 경우 기업의 대출심사 요건으로 ESG 수준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들은 전 공급망에 걸친 ESG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력사인 중소·중견기업에게도 ESG 관리에 대한 동참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대기업들은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안전이나, 인권, 환경보호 등 ESG 요소를 평가할 것이고, 이를 고려하여 협력사를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B2B 측면에서의 대기업 고객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일반 소비자들도 윤리적이고 친환경적인 경영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금조달과 고객기반 측면에서 볼 때, ESG 경영은 중소·중견기업에게도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SG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상당한 리스크 요인으로 다가오지만, 발상을 전환하면 중소·중견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ESG 경영을 잘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이전보다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고객기반을 크게 확대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중견기업들도 ESG 경영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자사의 ESG 경영을 이해관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ESG 정보공개 방침을 세워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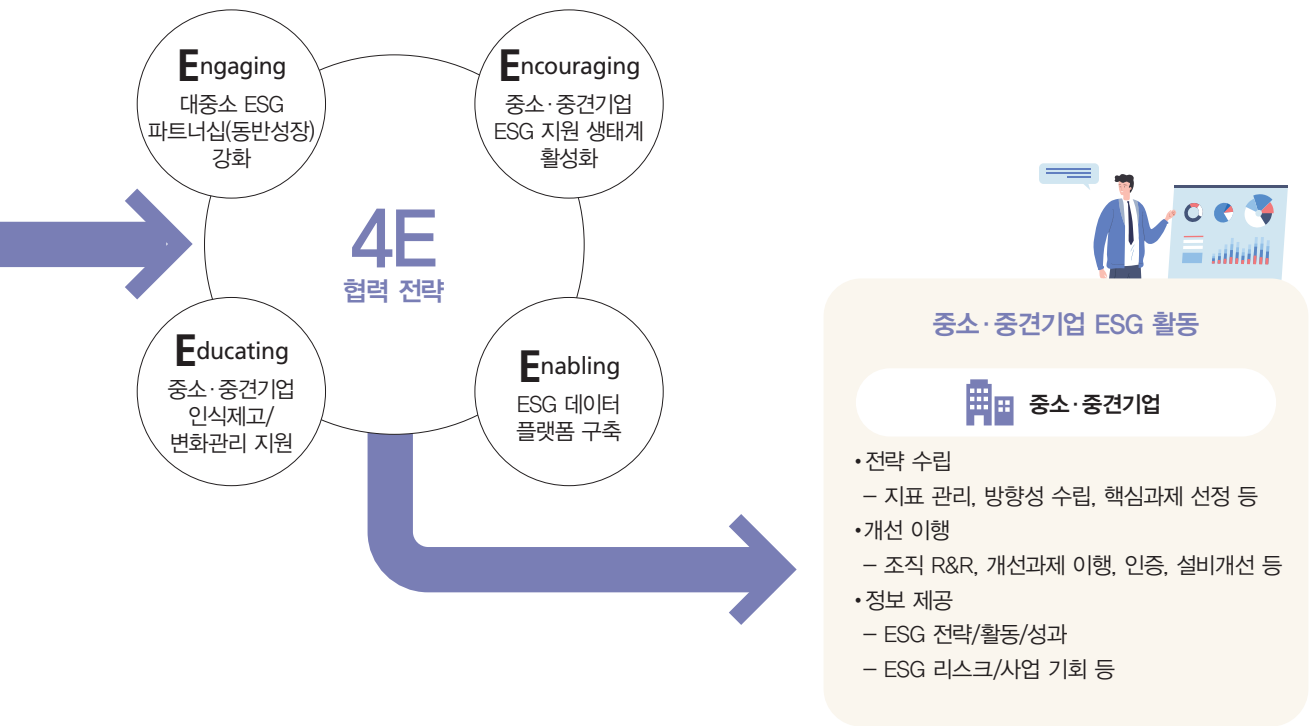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협력 전략



## 2.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강화를 위한 협력 전략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이 자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ESG 경영을 달성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대기업의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협력업체와의 동반 성장이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는 방법 중 하나라는 점에서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할 유인이 있습니다.

주요 협력 전략으로는 대기업-중소·중견기업 간 ESG 파트너십을 통해 공급망 내에 ESG 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ESG 역량을 함께 성장시키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한 ESG 관련 교육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인식제고와 변화관리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ESG 지원 제도 간 연계 성과 실효성, 접근성을 강화하여 ESG 지원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공공 ESG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중소·중견기업이 다양한 ESG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중소·중견기업 ESG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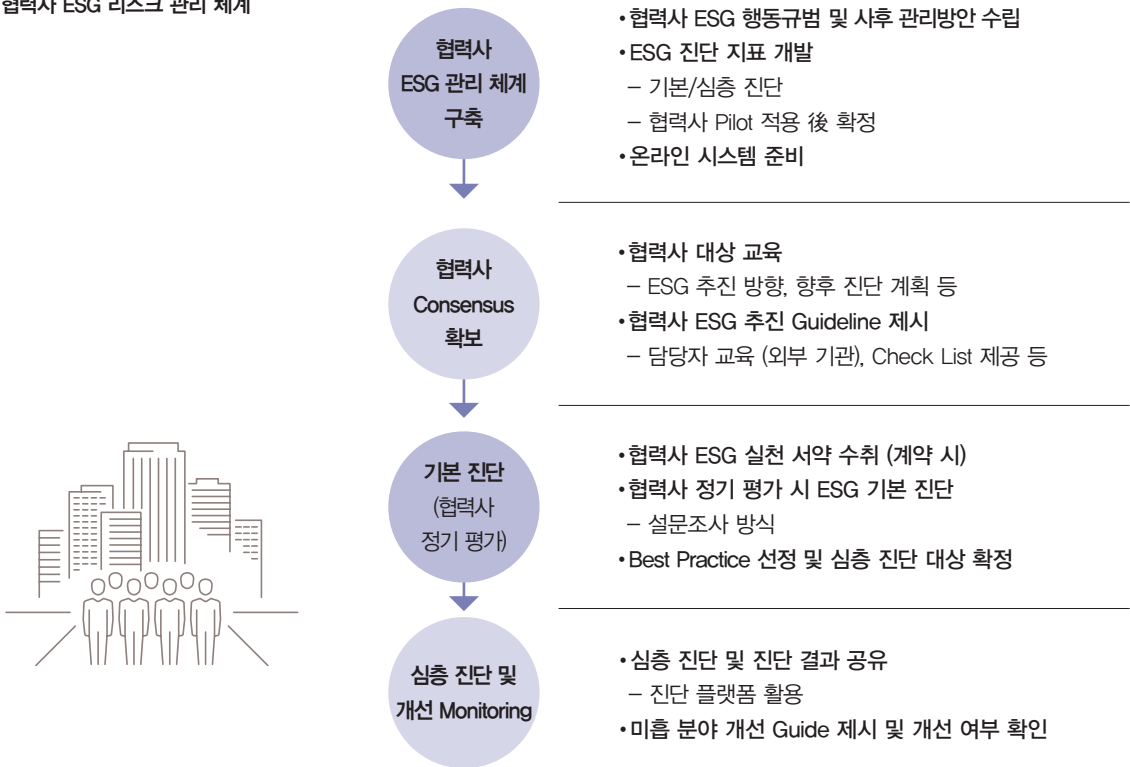
**중소·중견기업**

- 전략 수립
  - 지표 관리, 방향성 수립, 핵심과제 선정 등
- 개선 이행
  - 조직 R&R, 개선과제 이행, 인증, 설비개선 등
- 정보 제공
  - ESG 전략/활동/성과
  - ESG 리스크/사업 기회 등

## 전략 1 | 대기업-중소·중견기업 ESG 파트너십 강화

중소·중견기업 고객인 대기업의 ESG 경영요구와 지원프로그램은 중소·중견기업이 ESG 경영을 추진하는 동기와 혜택 측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애플의 경우 협력사의 ESG 경영 강화를 위해 협력사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 클린워터 프로그램, 폐기물 제로 목표 달성 파트너십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파트너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협력사 ESG 리스크 관리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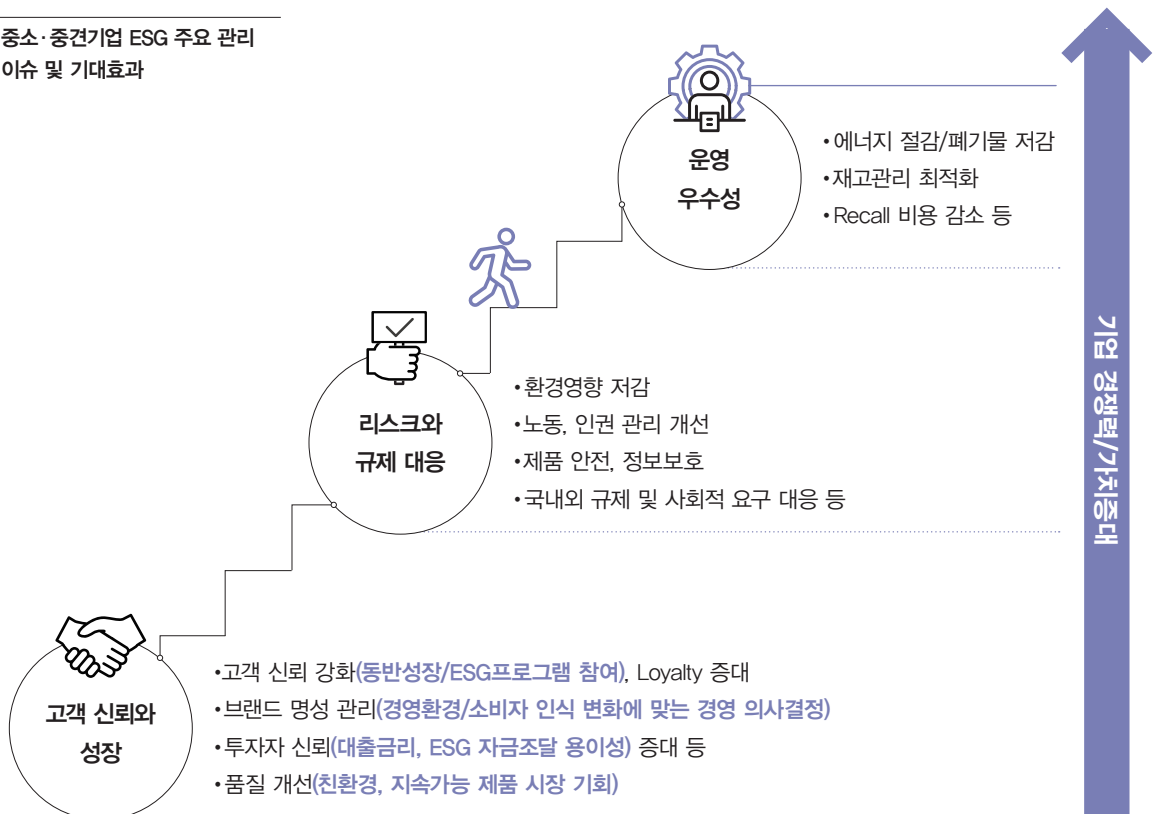
Source: 삼성KPMG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이 추진하는 협력사 ESG 관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ESG 역량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기업-중소·중견기업 간 ESG 리스크 관리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기업은 협력사의 ESG 행동규범을 제시하고, ESG 진단 지표 개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 ESG 진단을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를 공급망 내 공유해, 미흡한 분야를 개선시켜 나가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 전략 2 | 중소·중견기업 인식제고 및 변화관리 지원

중소·중견기업이 ESG 경영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인력과 자본 여력이 부족하다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ESG 경영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은 ESG 개선 시 나타날 수 있는 기대효과를 중소·중견기업과 적극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자발적 이행력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이 ESG 이슈별 특성과 자사 현황을 고려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가이드와 교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ESG 경영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크게 고객과 투자자의 신뢰, 리스크와 규제 대응, 운영 우수성 향상을 꼽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 경쟁력과 가치가 증대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ESG 주요 관리  
이슈 및 기대효과



### 전략 3 | 중소기업 ESG 지원 생태계 활성화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관련 정부기관에서는 다양한 ESG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 제도 간 연계성과, 실효성을 개선하여 ESG 지원 생태계를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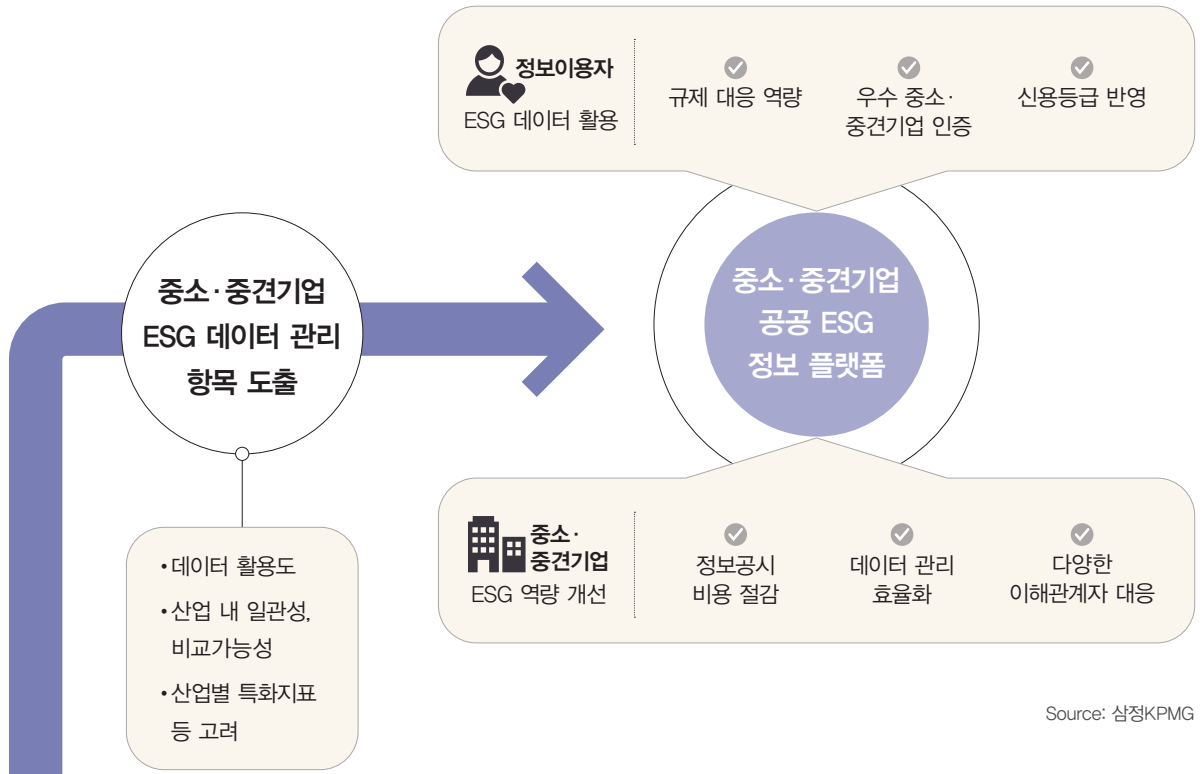
세부적으로 ESG 가이드라인과 평가/인증 기준에 대해 각 유관기관마다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하며, 정책자금 융자나 금융지원 인센티브 등의 경우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ESG 경영 유인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ESG 통합 데이터 관리를 통한  
정보 생태계 활성화

#### ESG 관리/정보공개 요구사항 정리



중소·중견기업 ESG 정보 생태계 활성화



전략 4 | ESG 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공 ESG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플랫폼을 활용해 다양한 ESG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은 데이터 수집 비용을 절감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SG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ESG 가이드라인이나, 협력사 ESG 평가 요구사항, ESG 기반 신용평가 항목 등 중소·중견기업이 필요한 ESG 데이터 관리 항목을 도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출된 항목을 데이터 활용도와 산업 내 비교가능성, 산업별 특화지표 등을 고려해 선별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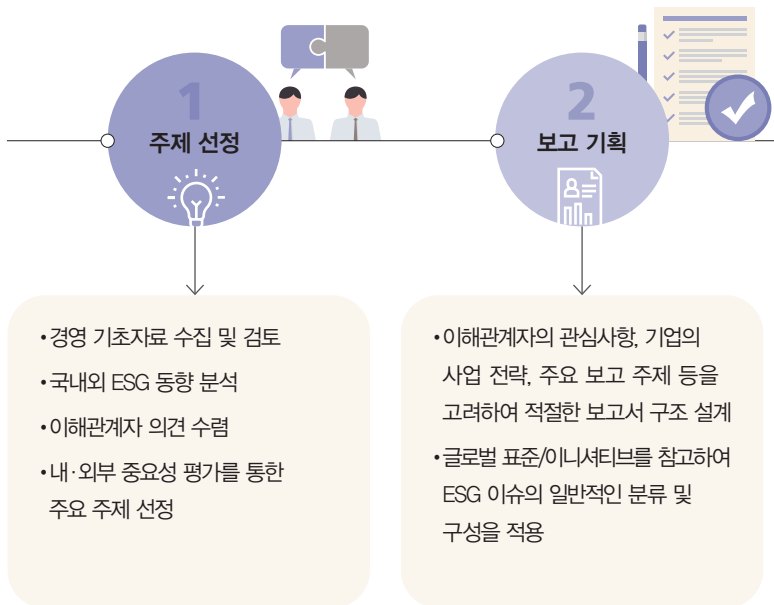
### 3. 중소기업의 ESG 정보공개 방안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정부가 연계된 협력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ESG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 자사의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주제 선정, 보고 기획, 내용 작성, 내용 검증, 대외 공개의 과정을 거치며 발간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시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ESG 이슈가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 창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관계자에게 효과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업이 선정한 ESG 이슈가 제품 및 서비스, 공급망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SG 정보공개시 선행 과제는 자사의 핵심 ESG 요소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모든 ESG 이슈를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기업마다 영위하는 비즈니스와 외부 환경요인이 상이하므로 각 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ESG 요소 또한 동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을 새롭게 시작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내·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사의 핵심 ESG 요소를 파악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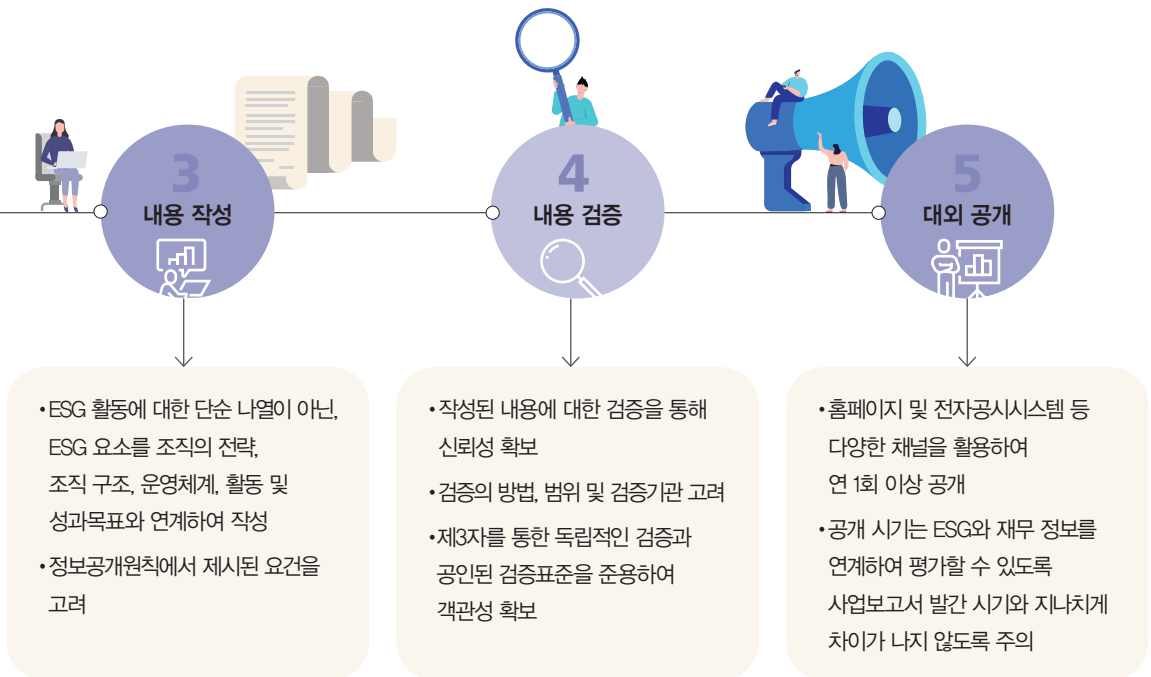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공개  
절차 및 단계별 검토 사항



이 때 ESG 경영전략 수립과 병행하는 것이 ESG 정보공개를 준비하는 데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만약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이미 발간하고 있다면, 기존 보고서 내용 중에 ESG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가 충분히 분석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하고, 이러한 리스크를 어떠한 전략과 감독 체계로 관리해 나갈 것인지를 보고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사 차원에서 지속적인 ESG 정보 관리가 필요합니다. 경영진 차원에서 ESG 이슈를 관리하면서, ESG 정보를 관리하는 조직을 통해 기업 내 일관성 있는 ESG 측정 기준과 보고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투자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ESG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SG 경영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ESG 경영은 리스크 관리를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의 성장 동력입니다. ESG 경영을 선제적으로 내재화하는 기업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생존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Source: 한국거래소, 'ESG 정보 공개 가이드선', 삼정KPMG 재구성

## 중소·중견기업 CEO를 위한 알기 쉬운 ESG

---

**발행일** 2021. 07. 22.

**발행처** 대한상공회의소, 삼성KPMG

**기획·디자인** 디자인크레파스(02-2267-0663)

※ 본 책자를 복사출판하고자 하는 경우 대한상공회의소  
ESG경영팀(02-6050-3473)으로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처와 협의되지 않은 책자의 수정 및 재가공은 금지합니다.

---



본 보고서는 FSC™ 인증을 받은 친환경용지에 콩기름 잉크로 인쇄되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CEO를 위한

# 알기 쉬운 ESG



대한상공회의소

삼성 KPMG